

노인 거주자 특성에 따른 주거 사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eniors' Housing Behavior

이광수*

Lee, Kwang-Soo

박수빈**

Park, Soo-Been

Abstract

As society ages increasingly, maintaining an independent lifestyle at home becomes an important issue for older people. The elderly themselves demand an independent lifestyle despite their health status and living arrangem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guidelines for the elderly housing through the analysis of seniors' housing behavior. The total of 438 residents take part in the questionnaire survey research through the quota sampling method grouped by age (60-64 group, 65-69 group, 70-74 group, over 75 group).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Seniors' subjective physical and functional status is not differed one age group from the others, but it is differed by the sex. (2) Seniors spend more than three hours on watching TV. The male spend more time on information search, while the female on the house chores. (3) The older use the bedroom more than the younger. Living rooms are more frequently used among the young old and the residents live in the apartment houses. (4) More than half senior use a sofa in the living room, a table in the dining room, and a bed in the bedroom. The young old and the apartment residents use such furniture more than the other groups.

Keywords : Senior, Housing Behavior, Age, Sex, The Type of House

주요어 : 노인, 주거 사용, 연령, 성별, 주택유형

1.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1983년 이후 합계출산율은 인구대체 수준 이하로 하락한 반면 의료기술의 발전, 식생활의 개선 등으로 평균 수명은 늘어나면서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율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개인의 발전에 우선적 가치를 두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자녀들이 노부모를 부양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전통적 관습은 점차 사라지고, 노인 스스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고자 하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일부는 노후에도 경제력을 갖추거나 병약한 경우 등의 원인으로 노인 계획 주거를 선택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노인은 익숙하고 안정적인 기존의 생활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생활하기를 희망한다.

본 연구는 노인이 기존의 주거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연령과 성별, 주택형태에 따라 비교분석함으로써 기존 주거환경에서의 지속적인 거주를 지원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사례연구의 대상은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하고, 구조적 설문을 통하여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 일상생활에서의 불편, 주생활행위 소요시간, 그리고 공간의 사용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주택유형(아파트, 비아파트), 성별(남, 여), 연령(60-64세, 65-69세, 70-74세, 75세 이상)에 따라 16집단으로 구분하

여 할당표집을 실시하고, 노인들이 설문을 답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경우 추가적인 설명이 가능 하도록, 훈련된 조사보조원이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도록 하였다. 총 6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484부를 회수하고 이 중 438부를 분석에 이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3. 노인 거주자와 지속적인 거주(Aging-in-Place)

과거에는 노인의 특성에 맞추어 계획된 주거환경이 노인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기대가 지배적이었으나,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노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현재는 노인들이 가능한 오랫동안 자신이 익숙한 주거와 주변 환경 내에서 거주하면서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Aging in place'의 개념이 널리 수용되고 있다. 노인 거주자가 현재의 주거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생활하게 되는 경우, 다양한 장점을 수반하게 된다. 첫째, 살아온 곳은 단지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곳으로, 친구와 이웃 간의 상호의존을 촉진시킴으로써 사회적 고립을 막는다(Kleemeier, 1961). 둘째, 주거이동과 환경 변화가 가져올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한다(Lawton, 1975). 노인 거주자가 거주지가 달라지는 경우 변경된 환경에 쉽게 적응하기가 어렵고, 독립적인 생활에 장애가 발생하거나(Lieberman, 1965) 질병에 대한 면역력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Schooler, 1975). 셋째, 경제적으로 효과적이다. 노년기에 일정한 수입이 없는 노인 거주자에게 이주비용은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반면, 지속적인 거주는 가장 경제적인 노인의 주거 방향으로 평가될 수 있다.

* 정희원(주저자), 부산대학교 주거환경학과 석사 수료

** 정희원(교신저자), 부산대학교 주거환경학과 및 노인생활환경연구소 부교수, 이학박사

노인의 주거환경 관련 연구 동향은 크게 노인 전용의 계획 주거에 관한 연구와 기존 주거환경에서 계속 거주에 대한 연구로 나누어볼 수 있다. 기존 주거환경에 관한 연구(김현진·이경락·안옥희, 2000; 이영호·김행신, 1998; 이지숙, 2005; 이특구 외, 2006; 최명규, 2000; 최보선·강병근, 1996)는 많지 않으나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 중 노인의 주거 내 일상생활행태에 관한 연구는 노인들의 일상생활을 통한 노인주택의 평가척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장영희·이문보, 2001) 노인이 주택 내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4. 연구결과

4.1 조사대상 특성

(1)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 가구의 학력은 '고졸 이하'가 69.2%, '대졸 이상'이 30.9%였다. 현재 직업은 '무직'이 86.5%이고, '자영업(8.5%)', '기타(5.0%)'순으로 가구 특성상 무직이 높은 비율을 보였다. 월평균소득은 '100만원 미만인 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고(35.2%)', '100-200만원 미만'이 26.3%, '200-300만원 미만'이 20.1%의 순이었다. 소득원은 '자녀의 지원(용돈)'의 비율이 가장 높고(31.8%), '연금(26.7%)', '집세나 이자소득(23.8%)'순이었다.

표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구분		N(%)	구분		N(%)
연령	60-64세	111(25.4)	주택 유형	아파트	214(48.9)
	65-69세	113(25.8)		단독주택	143(32.7)
	70-74세	107(24.4)		연립주택/빌라	51(11.6)
	75세이상	107(24.4)		다세대주택	27(6.2)
	합계	438(100.0)		기타	3(0.6)
성별	남자	209(47.7)	주택 규모	합계	438(100.0)
	여자	229(52.3)		66㎡미만	80(18.3)
	합계	438(100.0)		66-99㎡	123(28.0)
학력	고졸이하	303(69.2)		99-132㎡	130(29.7)
	대졸이상	135(30.8)		132-165㎡	57(13.0)
	합계	438(100.0)	165㎡이상	48(11.0)	
	합계	438(100.0)	합계	438(100.0)	
현재 직업	무직	379(86.5)	소유 상태	자가	387(88.4)
	자영업	37(8.5)		전세	36(8.2)
	기타	22(5.0)		월세	11(2.5)
월 평균 소득	합계	438(100.0)		기타	4(0.9)
	100만원미만	154(35.2)		합계	438(100.0)
	100-200만원	115(26.3)	가구 구성	혼자거주	90(20.6)
	200-300만원	88(20.0)		부부거주	229(52.3)
	300-400만원	41(9.4)		2대동거	94(21.4)
	400만원이상	40(9.1)		3대동거	25(5.7)
합계	438(100.0)	합계		438(100.0)	
소득원	경제활동	103(17.6)	방의 개수	1	26(5.9)
	자녀지원	186(31.8)		2	100(22.8)
	집세/이자소득	139(23.8)		3	210(48.0)
	연금	156(26.7)		4개이상	102(23.3)
	합계	584(100.0)		합계	438(100.0)
주관적 생활 수준	하	83(19.0)	욕실 개수	0	7(1.6)
	중하	132(30.1)		1	265(60.5)
	중	181(41.3)		2	160(36.5)
	중상	32(7.3)		3	6(1.4)
	상	10(2.3)		합계	438(100.0)
	합계	438(100.0)			

주택유형은 '아파트'가 48.9%이고 '단독주택'이 32.7%로 아파트와 비아파트의 비율이 각각 50% 정도였다. 주택규모는 '30-39평'이 29.7%이고 '20-29평'이 28.1%로 그 비율이 높았다. 가구 구성은 '부부만 거주(52.3%)'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2대 동거'와 '독거'의 비율이 각각 21.4%, 20.6% 이었으며, 자가의 비율이 88.4%로 매우 높았다.

이로써 조사대상 가구는 무직의 비율이 매우 높고, 월평균소득이 100-300만원 수준으로 주 수입원이 '자녀의 지원(용돈)', '연금', '집세나 이자소득'의 가구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절반 정도의 가구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39평 이하의 다양한 주택규모에 거주하며, 자가의 비율이 높아 향후 지속적인 거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하였다.

(2) 건강상태

주관적 건강상태²⁾에 대한 분석결과(표 2), 조사대상자들은 전반적으로 건강하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3.1, S.D.=0.75). 성별에 따라 남성의 평균(3.2)이 여성의 평균(3.0)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연령에 따라서는 집단별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으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P<0.10).

표 2. 연령 및 성별에 따른 건강상태 M(S.D.)

나이 성별	60-64세	65-69세	70-74세	75세이상	전체
남자	3.3(0.8)	3.3(0.7)	3.2(0.7)	3.1(0.9)	3.2(0.8)(a)
여자	3.2(0.8)	3.0(0.8)	3.1(0.9)	2.8(0.8)	3.0(0.8)(b)
합계	3.2(0.8)	3.2(0.8)	3.1(0.8)	3.0(0.9)	3.1(0.8)
성별	F-value	8.20***			
나이	F-value	2.14*			

*** p<0.01, * p<0.10

각 신체 기능³⁾에 대한 불편을 분석한 결과, '시력'과 '허리/무릎', '체력', '운동감각' 등 운동 기능과 '기억력', '새로운 것의 학습' 등 인지능력에 대하여 다소 불편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3.0). '허리/무릎(남성 M=3.2, 여성 M=3.5)' 기능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불편을 느끼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청력', '체력', '운동 감각', 그리고 '기억력'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더 많은 불편을 느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p<0.01). 또,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별과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성별*나이의 교호작용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여, 70세 이상의 여성이 다른 집단보다 불편(M=3.6)을 더 느끼는 것으로 보였다(p<0.05).

2) 5점 척도로 측정: ①-매우 불편하다, ②-불편하다, ③보통이다, ④-건강하다, ⑤-매우 건강하다

3) 신체 부위별 불편 정도를 5점 척도로 측정: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표 3. 신체적 기능 저하 M(S.D.)

시력이 좋지 않다					
구분	60-64세	65-69세	70-74세	75세이상	전체
남자	3.3(0.9)	3.2(0.8)	3.6(1.1)	3.3(1.0)	3.4(0.9)
여자	3.5(0.9)	3.3(1.0)	3.5(0.9)	3.7(0.9)	3.5(0.9)
합계	3.4(0.9)	3.3(0.9)	3.5(1.0)	3.5(1.0)	3.4(0.9)
성별	F(p)	2.1(n.s.)			
나이	F(p)	1.7(n.s.)			
성별*나이	F(p)	0.9(ns.)			
청력이 좋지 않다					
구분	60-64세	65-69세	70-74세	75세이상	전체
남자	2.6(1.0)	2.9(1.0)	2.9(1.2)	3.3(1.0)	3.0(1.1)
여자	2.7(1.0)	3.0(1.0)	3.0(1.1)	3.1(1.0)	3.0(1.0)
합계	2.7(1.0)(a)	2.9(1.0)(ab)	3.0(1.1)(b)	3.3(1.0)(c)	3.0(1.0)
성별	F(p)	0.1(n.s.)			
나이	F(p)	5.5***			
성별*나이	F(p)	0.6(n.s.)			
허리, 무릎 굽히기가 힘들다					
구분	60-64세	65-69세	70-74세	75세이상	전체
남자	3.0(1.0)	3.0(1.0)	3.2(1.0)	3.6(1.0)	3.2(1.0)(a)
여자	3.3(1.1)	3.3(1.0)	3.5(1.1)	3.9(0.9)	3.5(1.1)(b)
합계	3.1(1.1)(a)	3.2(1.0)(a)	3.4(1.0)(a)	3.7(1.0)(b)	3.3(1.0)
성별	F(p)	10.8***			
나이	F(p)	8.0***			
성별*나이	F(p)	0.0(n.s.)			
팔을 굽히고 뺨기가 힘들다					
구분	60-64세	65-69세	70-74세	75세이상	전체
남자	2.7(1.0)	2.8(1.0)	2.9(1.0)	3.1(1.0)	2.8(1.0)(a)
여자	3.0(1.2)	3.1(1.0)	3.1(1.2)	3.5(1.0)	3.2(1.1)(b)
합계	2.9(1.1)(a)	3.0(1.0)(ab)	3.0(1.1)(ab)	3.3(1.1)(b)	3.0(1.1)
성별	F(p)	7.6***			
나이	F(p)	3.3**			
성별*나이	F(p)	0.1(n.s.)			
손가락이 예전처럼 섬세하게 움직이지 않는다					
구분	60-64세	65-69세	70-74세	75세이상	전체
남자	2.7(1.0)	2.6(1.0)	2.8(1.0)	2.8(1.1)	2.7(1.0)(a)
여자	2.8(1.1)	2.9(1.0)	2.9(1.0)	3.1(1.0)	2.9(1.0)(b)
합계	2.8(1.1)	2.8(1.0)	2.8(1.0)	3.0(1.0)	2.8(1.0)
성별	F(p)	4.0**			
나이	F(p)	1.3(n.s.)			
성별*나이	F(p)	0.5(n.s.)			
균형을 잡기가 힘들다					
구분	60-64세	65-69세	70-74세	75세이상	전체
남자	2.6(1.0)	2.6(0.9)	2.8(1.0)	3.1(1.0)	2.8(1.0)
여자	2.6(1.0)	2.8(1.0)	2.9(1.1)	3.2(1.0)	2.9(1.0)
합계	2.6(1.0)(a)	2.7(1.0)(a)	2.9(1.0)(ab)	3.1(1.0)(b)	2.8(1.0)
성별	F(p)	1.5(n.s.)			
나이	F(p)	5.4***			
성별*나이	F(p)	0.4(n.s.)			
체력이 많이 떨어졌다					
구분	60-64세	65-69세	70-74세	75세이상	전체
남자	3.1(0.9)	3.0(0.9)	3.3(0.8)	3.2(1.0)	3.2(0.9)
여자	3.2(1.0)	3.0(1.0)	3.4(1.1)	3.6(0.9)	3.2(1.0)
합계	3.2(1.0)(ab)	3.0(1.0)(a)	3.3(1.0)(b)	3.4(1.0)(b)	3.2(1.0)
성별	F(p)	1.1(n.s.)			
나이	F(p)	4.8***			
성별*나이	F(p)	0.7(n.s.)			
운동감각이 많이 떨어졌다					
구분	60-64세	65-69세	70-74세	75세이상	전체
남자	3.1(0.9)	2.9(0.9)	3.4(0.8)	3.3(1.0)	3.2(0.9)
여자	3.3(0.9)	3.0(0.9)	3.4(1.0)	3.5(0.9)	3.3(1.0)
합계	3.2(0.9)(b)	2.9(0.9)(a)	3.4(0.9)(b)	3.4(1.0)(b)	3.2(1.0)
성별	F(p)	1.7(n.s.)			
나이	F(p)	6.8***			
성별*나이	F(p)	0.2(n.s.)			
기억력(물건, 장소, 사람 등)이 많이 저하됐다					
구분	60-64세	65-69세	70-74세	75세이상	전체
남자	3.3(0.8)	3.2(0.9)	3.3(0.9)	3.3(0.9)	3.3(0.9)
여자	3.3(0.9)	3.1(1.0)	3.5(0.9)	3.6(0.9)	3.4(0.9)
합계	3.3(0.9)	3.2(0.9)	3.4(0.9)	3.5(0.9)	3.3(0.9)
성별	F(p)	1.1(n.s.)			
나이	F(p)	2.4			
성별*나이	F(p)	0.8(n.s.)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이해하기가 힘들다					
구분	60-64세	65-69세	70-74세	75세이상	전체
남자	3.3(0.8)	3.2(1.0)	3.0(1.0)	3.4(0.9)	3.2(0.9)
여자	3.1(1.0)	3.1(1.1)	3.6(0.9)	3.6(0.9)	3.3(1.0)
합계	3.2(0.9)	3.2(1.0)	3.3(1.0)	3.5(0.9)	3.3(1.0)
성별	F(p)	0.8(n.s.)			
나이	F(p)	2.6*			
성별*나이	F(p)	3.9***			

*** p<0.01, ** p<0.05, * p<0.10

4.2 주생활 행위 특성

주택 내·외부에서의 활동시간을 조사한 결과, '집에서 보내는 시간(M=10.1시간)'이 '집 외의 장소에서 보내는 시간(M=6.6시간)'보다 많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집에서 보내는 시간도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p<0.1). 또, 성별에 따라 '집에서 보내는 시간'은 여성(M=10.8시간)이 남성(M=9.4시간)보다 많고, '집 외의 곳에서 보내는 시간'은 남성(M=7.4시간)이 여성(M=5.9시간)보다 많은 것으로 분석되어, 노년기에도 여성이 남보다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였다(p<0.01).

표 4. 주택 내외부에서의 활동시간 M(S.D.)

구분	활동	취침시간	집에서 시간		집 외에서 시간	
			M(S.D.)	M(S.D.)	M(S.D.)	M(S.D.)
연령	60-64세	7.4(1.0)	9.7(2.9)	6.9(3.1)		
	65-69세	7.4(1.3)	9.8(2.7)	6.8(2.7)		
	70-74세	7.3(1.4)	10.2(2.9)	6.5(2.9)		
	75세이상	7.1(1.3)	10.6(3.0)	6.3(2.6)		
	전체	7.3(1.3)	10.1(7.7)	6.6(2.8)		
	F-value	0.867	2.144*	1.260		
성별	남성	7.2(1.2)	9.4(2.8)	7.4(2.9)		
	여성	7.3(1.3)	10.8(2.8)	5.9(2.5)		
	t-value	-0.887(0.376)	-5.186(0.000)***	5.766(0.000)***		

*** p<0.01, * p<0.10

조사대상자가 주택 내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행위는 'TV시청'으로 평균 3.2시간이고, 다음이 '식사하기'로 평균 1.6시간 이었다. 연령에 따른 분석분산 결과,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TV 시청 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p<0.01). 성별에 따른 분석결과, '신문읽기', '인터넷', 그리고 '건강관리'는 남성이 더 많은 시간을, 'TV시청', '친구/이웃 등 초대/접대', '집안 청소', '조리/식사준비/설거지' 등은 여성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로써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TV 시청시간의 증가하고 남성의 경우 정보 탐색 행위에 1시간 이상을 소모하는 반면, 가사행위는 여전히 여성의 부담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표 5. 주생활 행위별 소요시간 M(S.D.)

구분	연령				F	성별			전체
	60-64세	65-69세	70-74세	75세이상		남성	여성	t	
식사하기	1.6(0.8)	1.5(0.7)	1.7(0.8)	1.7(0.8)	1.1	1.6(0.8)	1.7(0.7)	-0.6	1.6(0.8)
TV시청	2.8(1.6)(a)	3.0(1.5)(ab)	3.4(2.0)(bc)	3.7(2.1)(c)	5.3***	3.0(1.8)	3.5(1.9)	-2.7***	3.2(1.8)
신문읽기	0.9(0.7)	0.9(0.7)	0.9(0.9)	1.0(1.0)	0.5	1.1(0.8)	0.8(0.8)	4.1***	0.9(0.8)
인터넷	0.9(1.2)	0.8(1.1)	0.7(1.1)	0.7(1.2)	0.6	1.1(1.3)	0.6(0.9)	4.7***	0.8(1.2)
건강관리	0.8(0.7)	1.0(1.0)	1.0(0.8)	0.9(0.8)	1.7	1.1(0.9)	0.9(0.8)	2.3**	1.0(0.8)
친구/이웃 초대/접대	0.5(0.8)	0.4(0.7)	0.4(0.7)	0.5(0.9)	0.5	0.4(0.7)	0.6(0.8)	-2.7***	0.5(0.8)
집안청소	1.0(0.7)	0.9(0.7)	1.0(0.8)	0.9(0.8)	0.1	0.6(0.7)	1.2(0.7)	-9.6***	0.9(0.8)
조리/식사준비/설거지	1.1(1.0)	1.0(1.0)	1.0(1.1)	0.8(0.9)	2.5*	0.3(0.7)	1.5(0.9)	-15.5***	1.0(1.0)

*** p<0.01, ** p<0.05, * p<0.10

4.3 주거 공간 사용 특성

주생활 행위가 주로 이루어지는 장소는 ‘방/침실’, ‘마루/거실’이 각각 45.9%, 49.6%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는 ‘60-64세’는 ‘마루/거실’의 사용 비율이 55%인 반면 이외의 연령 집단의 경우 ‘방/침실’의 사용 비율이 5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에 따라서는 ‘아파트’의 경우 ‘마루/거실(53.7%)’에서, ‘비아파트’경우 ‘방/침실(55.4%)’에서 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파트’의 평면 구조가 ‘거실’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표 6. 주생활 행위가 주로 이루어지는 공간 N(%)

구분	연령				성별		주택유형		전체
	60-64세	65-69세	70-74세	75세 이상	남성	여성	아파트	비아파트	
마루/거실	60 (55.0)	46 (42.6)	43 (41.0)	47 (44.8)	99 (49.0)	97 (43.1)	110 (53.7)	86 (38.7)	196 (45.9)
방/침실	44 (40.4)	54 (50.0)	57 (54.3)	57 (54.3)	100 (49.5)	112 (49.8)	89 (43.4)	123 (55.4)	212 (49.6)
부엌/식사공간	5 (4.6)	8 (7.4)	5 (4.8)	1 (1.0)	3 (1.5)	16 (7.1)	6 (2.9)	13 (5.9)	19 (4.4)
전체	109 (100.0)	108 (100.0)	105 (100.0)	105 (100.0)	202 (100.0)	225 (100.0)	205 (100.0)	222 (100.0)	427 (100.0)

4.4 입식 가구 사용

거실, 침실, 주방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입식 가구의 사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식탁은 67.1%, 소파는 61.1%, 그리고 침대는 41.1%의 거주자가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연령에 따른 비교·분석 결과 ‘60-64세’ 집단의 소파(80.9%) 및 침대(55.5%), 식탁(82.0%)의 사용 비율이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매우 높았다. 성별에 따라 남성 거주자가 식탁을 71.3%, 소파를 64.4%, 그리고 침대를 43.8%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여성 거주자 보다 사용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주택 유형에 따른 입식 가구 사용은, 아파트의 경우 식탁이 82.2%, 소파가 79.4%, 침대가 56.3%인 것으로 응답한 반면, 아파트 이외의 주택형태에서는 식탁이 52.7%, 소파가 43.5%, 침대가 41.1%인 것으로 응답하여 아파트 거주자

표 7. 입식 가구 사용 N(%)

구분		연령				성별		주택유형		전체
		60-64세	65-69세	70-74세	75세 이상	남성	여성	아파트	비아파트	
소파(거실)	예	89 (80.9)	65 (57.5)	61 (57.0)	52 (48.6)	134 (64.4)	133 (58.1)	170 (79.4)	97 (43.5)	267 (61.1)
	아니오	21 (19.1)	48 (42.5)	46 (43.0)	55 (51.4)	74 (35.6)	96 (41.9)	44 (20.6)	126 (56.5)	170 (38.9)
	전체	110 (100.0)	113 (100.0)	107 (100.0)	107 (100.0)	208 (100.0)	229 (100.0)	214 (100.0)	223 (100.0)	437 (100.0)
침대(침실)	예	61 (55.5)	36 (32.1)	46 (43.0)	36 (33.6)	91 (43.8)	88 (38.6)	120 (56.3)	59 (26.5)	179 (41.1)
	아니오	49 (44.5)	76 (67.9)	61 (57.0)	71 (66.4)	117 (56.2)	140 (61.4)	93 (43.7)	164 (73.5)	257 (58.9)
	전체	110 (100.0)	112 (100.0)	107 (100.0)	107 (100.0)	208 (100.0)	228 (100.0)	213 (100.0)	223 (100.0)	436 (100.0)
식탁(주방)	예	91 (82.0)	72 (63.7)	69 (64.5)	62 (57.9)	149 (71.3)	145 (63.3)	176 (82.2)	118 (52.7)	294 (67.1)
	아니오	20 (18.0)	41 (36.3)	38 (35.5)	45 (42.1)	60 (28.7)	84 (36.7)	38 (17.8)	106 (47.3)	144 (32.9)
	전체	111 (100.0)	113 (100.0)	107 (100.0)	107 (100.0)	209 (100.0)	229 (100.0)	214 (100.0)	224 (100.0)	438 (100.0)

의 입식가구 사용이 현저하게 높았다.

5. 결론

본 연구는 노인이 기존 주거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연령 및 성별에 따라 비교분석함으로써 노인의 지속적인 거주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안하려는 연구이다. 본 연구의 결과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보통이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남성이 여성보다 건강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주요 감각기관, 운동기능, 그리고 인지기능에 대한 주관적 반응을 분석한 결과, 운동 기능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불편을 경험하고, 청력, 운동기능, 기억력 등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더 많은 불편을 경험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둘째,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TV 시청시간의 증가하고 남성의 경우 정보 탐색 행위에 1시간 이상을 소모하는 반면, 가사행위는 여전히 여성의 부담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셋째, 노인 거주자는 거실을 중심으로 생활이 이루어지는 일반 거주자보다 방/침실을 자주 이용하고, 64세 이하 노인 거주자와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다른 집단보다 마루/거실을 보다 많이 이용하였다.

넷째, 노인 거주자의 경우도 식탁의 사용 비율이 매우 높고, 소파 및 침대로 절반 정도의 가구에서 사용하고 있었다. 특히 연령이 낮거나 아파트에 거주자구인 경우 입식 가구 사용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상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밝혀진 남성 거주자의 정보 탐색 행위, 여성 노인의 가사 부담, 침실(방)과 거실(사용) 특성, 그리고 입식 가구 사용의 증가 등은 현 주택에서 노인의 지속적 거주를 위한 계획 또는 개조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문헌

1. 김현진,이경락,안옥희(2000), 노인주택의 평가항목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제11권 3호
2. 서희숙(2002), 노인을 위한 주거공간 계획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 김행신,이영호(1998), 노인단독가구의 주거 지원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14권 8호
4. 이지숙(2005), 노인의 연령 및 주거유형별 주택내 각 실의 불편사항,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제16권 6호
5. 이특구,권순정,오은진,김상길,김석준,김노석(2006), 고령자를 위한 주거시설 치수 표준화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지 제12권 2호
6. 장영희·이문보(2001), 노인의 주거 내 일상생활행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17권 9호
7. 최명규(2000),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단독가구의 주거환경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16권 9호
8. 최보선,강병근(1996), 사례분석을 통한 노인주거의 계획방향에 관한 연구, 대한 건축학회 논문집 제16권 2호